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빠른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어떤 선진국이나 개도국보다 리더십을 발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국제 탄소가격의 불안과 선진국의 탈퇴로 위기에 직면한 기후변화협약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선언했던 한국정부가 이제는 국가차원이 아닌 기업차원에서 녹색경영을 통한 성장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우리 기업들도 과거와 달리 환경문제, 에너지 절감, 기후변화문제 등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라는 소명하에 녹색경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수립이 필요한 때인 듯하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녹색경영전략



고 순 현 | (주)에코프론티어 녹색경영사업본부 본부장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환경부 환경성적표지 및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사원

한국수자원공사, 현대건설, 신한금융그룹, LG전자,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 및 다수기업 컨설팅 및 연구 수행

tel. 02-3153-7760 | shko@ecofrontier.com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는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녹색 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新국가발전 패러다임입니다.”

〈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사(2008. 8. 15 이명박 대통령) 〉

몇 년전 수없이 많이 인용되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가 지금에서야 얼마나 큰 도전이고 변화였는지 새삼스럽게 느껴지면서 향후의 한국의 녹색성장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숨가쁘게 달려온 한국 환경분야의 새로운 도전기 ‘저탄소 녹색성장’이 한고비를 넘겨 정부와 기업에서 성과를 진단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배출총계 관리 등 (23개 과제)	4. 녹색기술 · 산업의 개발 Green Tech. 2015 initiative 등 (56개 과제)	8. 녹색국도 · 교통의 조성 자원순환형 녹색국도 구축 등 (57개 과제)
2. 탈석유 · 에너지자립 강화 산업의 고효율화 촉진 등 (47개 과제)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녹색경영 확산, 중소기업 녹색화 촉진 등 21개 과제	9. 생활의 녹색혁명 범국민대상 녹색성장 평생교육 실시 등 (32개 과제)
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기후변화 감시망 확충 등 (49개 과제)	6. 산업구조의 고도화 신규서비스 및 투자 활성화 등 (36개 과제)	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선진-개도국 기교 역할 등 (14개 과제)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금융 확대도 정비, 배출권거래제 추진계획 수립 등 (54개 과제)	
10대 정책 및 세부과제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하고 향후의 기업 녹색경영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이 온 것 같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배출권거래제로 인하여 현재의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관심과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올해 대선을 앞두고 정권 변화 시기에 쉽게 예상되는 크고 작은 그 '변화'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라는 3대 목표 아래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전 지구적 환경문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함양된 산업계와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나름의 성과도 달성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30년 BAU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0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 현재 약 500여 개의 기업이 정부와 약속한 배출 허용량을 준수하기 위하여 바른수건 쥐어짜기식 에너지관리를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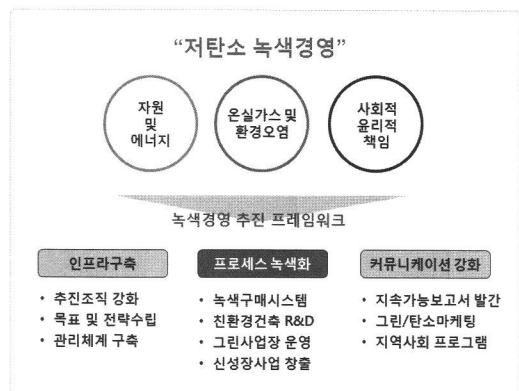
기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규제적 리스크보다는 기업 환경 및 녹색경영의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조직과 전략을 재정비하는 사례도 그리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다. 기후변화라는 환경문제가 특정 산업단지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이슈와 차원이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고 에너지 소비와 직결되는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온난화, 지구온도 상승이라는 부분이 생산 활동을 하는 주체인 기업이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수수방관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이러한 시스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례들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 국내 제조환경의 한계, 새로운 정부의 탄생 등은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회생 전략과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데, 기업의 녹색경영 측면에서도 단기적인 규제대응이나 임기응변이 아닌 기업의 중장기적인 사업전략과 경영시스템과의 통합된 전략수립에 대한 움직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글로벌 환경이슈나 선진국의 환경정책, 프로그램 등에 개별적으로 편승했다면 이제는 한국적 녹색경영의 개념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중장기적인 마스

터플랜 하에서 계획 등을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쩌면 기후변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 전 한국시장을 지켜왔던 지속가능경영이라는 개념이 다 시금 정부와 기업의 녹색경영의 틀을 제공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현재의 글로벌 환경 이슈의 단연 기후변화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부터 산업과 경제적 이슈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향후 지속되어야 할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노력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본고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경영 추진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또한 새로운 이슈를 제안하자는 의미는 아니며 정부 규제 대응에만 치중해 있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원래의 경영목표와 사업전략, 운영시스템,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내재화시키지는 취지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녹색경영 추진 프레임워크는 인프라 구축과 프로세스 녹색화, 커뮤니케이션 강화 부분으로 구분되며 그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따라 공정 개선에만 치중했던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커뮤니케이션 강화 부분에 특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 활동이 증가하면서 조직 구축의 많은 혼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전담조직을 신설한 기업도 있고 기존의 동력팀, 설비팀, 환경안전팀 등에 관련 업무를 통합한 기업도 있는데 문제는 관련 업무가 단기적인 계획과 성과평가에 그쳐 기업의 녹색경영 역량으로 내재화되지 못하여 기업의

경영혁신과 새로운 사업기회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기업에서의 환경, 기후변화는 규제 또는 환경비용이라는 인식이 높아 부서간 업무 떠 넘기 기식이 많았는데 기업내 모든 활동의 시작은 조직이므로 기업의 녹색경영전략에 따라 적합한 부서를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녹색경영 이슈를 인식, 식별, 대응, 평가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과 함께 중요한 것이 기업의 전사적 녹색경영 전략과 방침일 것이다. 기업의 사업과 경영전략의 특성을 고려한 우리 기업만의 녹색경영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특정 규제나 이슈,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시장 변화에도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한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프로세스의 녹색화를 위해서는 기업내 모든 부서가 녹색경영의 방침과 전략을 이해하고 각 부서의 업무에 녹색경영을 접목, 통합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친환경 R&D, 녹색구매, 청정생산 등은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녹색경영의 주제들이지만 여전히 전사적 차원에서 통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좀 더 강력한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바탕으로 프로세스의 녹색화를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성과 관리를 통하여 생산과정 전반에 있어 녹색경영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기업 문화에서 있어 커뮤니케이션은 여전히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활동인 것 같다. 과거 부정적 측면을 숨기고 포장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되기도 했던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최근 이해관계자의 정보 요구와 녹색금융기관, 환경단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 평가, IT기술 발달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출에 따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기업의 중요한 녹색경영 활동이 될 전망이다. 녹색경영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목표, 성과, 계획 등은 그 기업의 내·외부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신뢰도와 평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정보공개는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되는데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도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률화하기도 했다.

한국은 그동안의 빠른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어떤 선진국이나 개도국보다 리더십을 발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국제 탄소가격의 불안과 선진국의 탈퇴로 위기에 직면한 기후변화협약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선언했던 한국정부가 이제는 국가차원이 아닌 기업차원에서 녹색경영을 통한 성장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한국 기업도 과거와 달리 환경문제, 에너지 절감, 기후변화문제 등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소명하에 녹색경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수립이 필요한 때인 듯하다.

